

##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고의 종이패키지 ‘창조’ (주)신원인팩

1998년 10월 1일 서울 양평동에 처음 설립된 (주)신원인팩(대표이사 이성구)은 지기·지함류와 세트케이스, 접지세트 등 화장품, 생활용품의 종이패키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성구 대표는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철학으로 언제나 젊은 감각과 진취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기존의 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보다 고객사의 요구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철저한 마케팅 조사로 최상의 패키지를 구현해내고 있다. 탄탄한 기술과 시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78종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품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종이에 대한 ‘진속한 마음’으로..난관 극복하며 ‘성장’

이성구 대표는 2010년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개인 사업으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 유학을 하며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한국의 제품을 중국으로, 중국의 제품을 한국으로 중개하며 사업에 대한 믿거름을 다졌다. 하지만 부친의 회사가



▲ 이성구 대표이사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무역 일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돕기 위해 국내로 돌아와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고객사와 협력사, 직원들과 교류하며 점차 적응하게 되었고, 2012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업무 전반을 관장했다. 이 시기에 회사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옷셋 인쇄업을 접하면서 종이에 대한 ‘친숙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업계에 빠르게 녹아들 수 있었다.

이성구 대표는 “회사의 경영 어려움과 영업 인력의 부족으로 회사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면서 “영업 업무를 시작으로 종이 관련 업체 및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 더 나아

가 인쇄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양대 MBA 과정 및 다양한 최고경영자 과정 등 경영 수업을 받으며 차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 3년 뒤 지적 재산권 ‘100건’ 목표로 연구·개발 집중

신원인팩의 장점은 뚜렷하다.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단순 OEM(주문자 위탁생산)이나 ODM(제조자 개발생산)이냐의 차이다. 특히 신원인팩은 지기구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등 종이로 할 수 있는 색다른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 신원인팩 본사 전경

##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이성구 대표는 “개발은 마치 빛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투자는 계속하지만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데 편협하게 한 군데에만 맞춰져 있다면 새로 유입된 고객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많은 고객사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사들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냈지만, 지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많은 지적재산권 덕분에 고객사들 사이에선 신원인팩이 ‘연구와 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신원인팩은 고객사 및 파트너사들과 함

께 끊임없이 여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동종업계 최다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고객사의 제품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신원인팩은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특허 7종, 실용신안등록증 10종, 디자인등록증 48종, 관련디자인등록증 7종, 상표권 6종 등 각종 지적재산권 총 78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구 대표는 “지적재산권 취득의 경우 1년에 10건도 넘게 진행할 때도 있다”면서 “3년 뒤인 2026년 즈음에는 특허나 디자인 건 총 100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펄프클램 개발 등 ‘친환경·ESG 경영’에도 앞장

신원인팩은 친환경을 위한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펄프몰드(Pulp Mold)를 활용한

친환경 패키지 ‘펄프 클램(Pulp Clam)’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다. 펄프몰드는 쉽게 말해 계란 판 같은 제품을 특수 금형 및 특수 성형기로 구현한 것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로 바꿀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신원인팩은 펄프몰드를 조개처럼 닫아 케이



▲ 지기·지함류 및 세트케이스 등 신원인팩 제품 사진

스 내에 넣어 하나의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 이를 ‘펄프클랩’이라 명명하고, 상표권도 등록했다.

신원인택이 수년간 연구·개발해 지난 2021년 ‘제30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 동상을 차지한 플라스틱 대체재 펄프클랩은 천연펄프나 폐지 등 각종 펄프 원료를 물과 혼합해 흡착, 건조하여 가공되는 포장재 및 완충재로, 오로지 생분해 되는 펄프 소재만을 주원료로 사용

해 매립과 소각 시 흡에서 자연 분해된다.

이 같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농업 현장과의 연결도 시도하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청송사과 업체인 FAIR PLAY FARMERS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과 유통에 소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소재들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사과 부산물을 활용한 종이 난좌 개발 및 친환경 종지와 잉크를 활용한 소포장 패키지를 통해 연

간 사용량만 수백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소재 일회용품의 재활용이 쉬운 종이 소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회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인증으로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자 한다. FSC인증 종지와 콩기름(SOY)잉크 사용, 수성 코팅의 적용 등을 시작으로 현재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성구 대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 연구 개발하여 고객사에 소개하고



▲ 사진 위부터 하이밀 6색기와 써멀라미네이팅기

##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제품 양산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빠른 납기 실현으로 '고객만족'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춰 종이의 재단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사내에서 모두 생산이 가능하다. 재단, 인쇄, 코팅, 박, 튜스, 접착, 세트케이스 공정 등 자체 생산이 가능해 고객사가 원하는 납기에 맞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정의 설비가 적게는 2대씩 많게는 5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검수 설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최종 생산 공정에서 혼입 및 제품의 부적격을 검수할 수 있는 비전 설비가 대표적이다. 해당 검수 설비는 제품의 혼입 방지 및 색

상 편차, 이물질 등을 확인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자체 검수팀도 상시 운용하며, 수작업 라인까지 구비해 제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제품이라도 양산이 가능하다.

양산 부문도 옵셋 인쇄기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여 제품 진행과 동시에 인쇄 시 발생하는 색상 편차, 이물질 등 불량률 첫 시작과 동시에 확인해 초기에 보완할 수 있다. 세트 케이스 양산기에도 비전기를 설치해 난수 바코드의 적용 여부 및 적절한 난수 바코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제품의 특수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는 설비도 개발했다. 해당 설비는 가품 방지를 위해 세트케이스 두 군데에 부착하여 제품 개봉 전까지 특수 바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성구 대표



▲ 이성구 대표이사(가운데)는 지난해 12월 15일 임직원들과 환경부 주관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는 “가품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라벨 부착기 역시 자체 제작해 고객사가 원하는 위치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객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별한 경영방침도 눈에 띈다. 신원인팩은 고객사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더 높게 예상하고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원하는 납기보다 24시간 빠르게, 품질 기준은 국내 OEM사 중 가장 높게, 단가는 품질 대비 최저가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성구 대표는 “산업 전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제품 생산에 있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사와 신뢰를 쌓기 위해 거래처에서 발주서가 들어오면 관리담당이 전표를 끊을 때 예정일 보다 하루 더 빨리 앞당긴다”고 말했다.

### **세상과 발맞춰 변화 추구 “포장 업계 미래 밝다.”**

이성구 대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외적인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 신원인팩은 현재 1공장, 2공장으로 생산라인이 분리되어 있는데 향후 5년 이내로 새로운 부지 및 신축 공장에서 1공장, 2공장, 영업본부를 한데 모아 생산의 가속화 및 품질의 안정화를 계획하고 있다.

신원인팩은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한다.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과 나눔 참여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 역시 빼놓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 이성구 대표는 평소 나눔에 관심을 두고 지난 2014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포장증 은장(2018), 금장(2020), 명예장(2022)을 수여 받았고, 지난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썸썸이가 바른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12월에는 환경부에서 주관한 고고챌린지에 동참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탄소배출 줄이GO’, ‘친환경 제품 개발하GO’, ‘지구 건강 지키GO’를 활동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경 지킴에 앞장설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성구 대표는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동종업계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친환경 인증 등 규제에 맞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2024년 새해, 이성구 대표는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판매 활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동종업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친환경 문제,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클레임 등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관측이다.

그러면서 “제품 자체에 대한 보호,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 표현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제품 포장 및 인쇄에 대한 전문화, 품질의 상향화, 친환경 제품 출시 등은 미래를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